

대만 조문철, 허계영 선교사

2022년 3/4 분기 사역 보고서

2022. 10. 12.

1. 갈멜산교회 예배당 완공

(1) 대만섬의 최중심, 최고지에서 대만섬 전체로 성령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교회

갈멜산교회는 대만섬의 배꼽과도 같은 지리적 중심이자 해발 1,700m 고지대에 위치한 련아이향(仁愛鄉) 쇼우팅(壽停)부락에 2년 전에 개척하여 곧 예배당까지 현당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성장시켜 주신 귀한 교회입니다. 이 갈멜산교회는 대만의 최중심, 최고지(高地)에 위치한 만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우상숭배가 만연한 대만섬 전체에 복음의 빛을 발하고 성령의 생수를 흘려보내며, 갈멜산에서 영적 대전투를 벌였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 나간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오로지 믿음과 기도로 교회건축을 완성한 교회

갈멜산교회는 2년 전, 우상숭배를 떠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가가호호 방문해 전도해 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으로 변화시켜 믿음으로 교회를 개척한 후, 2년만에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여 넉 달 만에 완공했습니다. 건축을 시작할 때에는 단 한 푼의 건축자금도 없었지만,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은 작지만 정성을 다한 현금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상상치도 못한 건축현금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결과 아무런 빚 없이 교회 건축을 완성하였고, 금년 11월 5일 현당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화재로 전소된 집터에서
착공 전날, 온 성도들이 뜨겁게 드린 기도회



2022. 7. 1.
교회 건축공사 시작



2022. 9. 4.
예배당 완공 후 첫 예배

(3) 무교회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복음의 방주와 같은 교회

런아이향(仁愛鄉) 쇼우팅(壽停)부락에는 대만의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운남성에서 이주해 온 군인 가족들(원래 미얀마 출신인 여인들이 운남성의 군인과 결혼해서 살다가 대만으로 이주해 온 후, 1965년 장개석 총통의 배려로 이곳에 정착촌을 만들어 거주하기 시작한 분들로 남편을 여의고 긴 세월 혼자 살아온 평균연령 80세 이상의 독거노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과 생활고로 인해 힘들게 살아가고 이 노인들에게 주일성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교육해 나간 결과 이제는 과거의 우상숭배하던 습관이 점차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의 한가족 공동체 의식이 짹트고 있습니다.

(4) 관광객들의 예배와 기도를 돋는 교회

그런가하면 런아이향(仁愛鄉) 쇼우팅(壽停)부락은 대만의 유명한 관광지인 칭징농장(清境農場)이 위치한 지역으로, 주말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만 그동안 크리스천들이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인근 숙소에 갈멜산교회의 안내문과 전도지를 비치해 놓고, 인터넷에도 교회 소개를 함으로써 대만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이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이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또한 호기심에 예배당을 찾아오는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 결손가정 청소년들을 돌보는 교회

한편 런아이향(仁愛鄉) 쇼우팅(壽停)부락에는 이혼 가정, 결손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미래에 대한 별 다른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멜산교회에서는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에 청소년교실을 열어 학업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년 음악교실 등을 개설해 키보드나 기타, 드럼 등의 악기 등을 가르쳐 주면서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6) 독거노인들을 섬기는 교회



런아이향(仁愛鄉) 쇼우팅(壽停)부락에는 독거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갈멜산 노인돌봄센터(關懷中心)’를 개설해 하루 한 끼 도시락을 제작, 배달하는 사역을 계획 중입니다. 향후 ‘갈멜산 관회중심(關懷中心)’이 설립되면, 대만정부의 후원을 받아 식재료비를 충당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독거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역을 통해 노인들의 생활고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복음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 애찬

* 갈멜산교회 약력

- 개척준비모임 (2021년 2월 1일): 매주 목요일 저녁 가정방문 기도회
- 교회창립 (2021년 8월 1일): 마을회관을 빌려 주일예배 시작
- 교회건축 시작 (2022년 7월 1일): 화재로 방치된 가정집 개축 공사 시작
- 교회외부공사 완공 (2022년 9월 4일): 신축 예배당에서 주일예배 시작
- 교회내부공사 완공 (2022년 9월 26일): 한인 선교사 30여명 초청, 감사예배
- 교회건축 현당감사예배 (2022년 11월 5일): 현지인 100명 초대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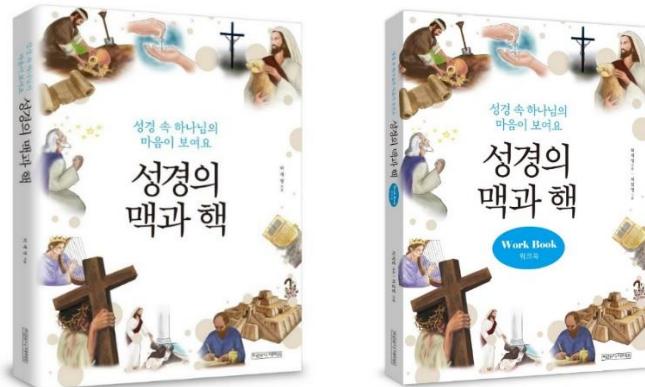
* 갈멜산교회 현황

- 창립자: 단니푸(婉妮芙) 전도사 (은혜신학원졸업)
- 협력: 신망애 기금회(信望爱基金会)
- 재적인원: 10명(2021. 9. 26. 4명이 세례 받음)
- 출석인원: 5명(직업상, 건강문제상 고정적인 주일성수가 어려운 성도들은 목요일 저녁 가정방문 예배로 보충)
- 장기계획: 향후 지속적으로 인근 무교회지역에 제2, 제3의 갈멜산교회를 개척해 나가고자 함.
(갈멜산교회 주변 전도대상 7개 마을: 寿亭新村, 定远新村, 博望新村, 松岗部落, 仁庄部落, 道班部落, 荣光部落)
- 단기계획: 금년 12월 성탄절 이웃초청전도대잔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는 중

2. [성경의 맥과 핵] 중국어본 출판 준비

(1) [성경의 맥과 핵] 교재의 특성

요즘 지구촌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현상들을 보면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촌음을 아껴가며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선교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말씀을 생생하고도 재미있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성경의 맥과 핵>을 집필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재는 저희 부부가 선교현장에서 현지인들을 가르치면서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다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사용하기에 딱 좋게 (특히 그림과 표, 지도 등 시각적 자료들을 많이 넣어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했다는 장점이 있지요) 특화된 교재입니다.



(2) 사람을 세우는 사역

그동안 한국교회는 선교지에 주로 교회나 선교센터, 학교나 병원 등을 지어주는 데 많이 주력해 왔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선교사로 18년 넘게 살아오면서, 선교현장에서 빼저리게 느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지인들의 심령을 변화, 양육시킴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립하도록(영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돋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지에 건물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을 남기는 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훨씬 더 의미 있는 열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3) 대만에서의 출판 효과

대만교회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대만교회를 깨우면, 이들과 연관된 전세계 화교교회를 깨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화교교회들이 일어서면,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화교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지경이 말할 수 없이 확대되는 것이지요. 이 교재가 대만에서 중국어로 출판된다면, 대만교회들을, 그리고 전세계 화교교회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대만 기독교서점에 가서 아무리 뒤져 봐도 정말 눈에 확 띠는 좋은 교재, 흥미롭고 매력적인 교재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의 맥과 핵]의 중국어본을 출판해 전세계 중국어권 성도들에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게 돋는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 출판 진행상황

현재 [성경의 맥과 핵]의 중국어본을 대만에서 출판하기 위해 현재 전문 번역가를 통해 번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10월말에 번역이 완료되면 교정과 디자인 작업을 거쳐 인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만은 인쇄 비용이 한국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인쇄의 질도 썩 좋지 않아 일단 한국에서 인쇄해서 대만으로 운송해 온 후, 내년에 대만의 침선회(浸宣會)출판사를 통해 대만에서 교재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3. 대만의 한인 청년들 대상 [성경의 맥과 핵] 세미나 개최



대만의 현지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도 [성경의 맥과 핵] 세미나를 진행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만에서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 대상으로는 그동안 총 3회(1회=18시간)에 걸쳐서 세미나를 진행한 것 이외에도, 지난 7, 8월에는 대만의 한인 및 현지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청년팀은 대만에서 현재 신학을 공부하는 전도사, 단기선교사

로 대만에 나와 있는 CCC 학생들, 그리고 한국어를 잘하는 대만교회 청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인 선교사들과 다음 세대 청년들이 이 과정을 이수한 후, 앞으로 각자 사역지에서 대만의 영혼들에게 세 미나를 다시 전수함으로써 ‘성경 속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 합니다.

5. 전도 동영상 제작

얼마 전, 한 대만 자매가 ‘말기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오빠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저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에 이 자매를 도울 방법을 고민하다가 곧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을 담은 동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맥과 핵]을 요약해 내용을 구성한 후, 샵화와 배경음악 넣기, 나레이션 하기, 자막넣기 등의 작업을 통해 드디어 [인간, 존재 자체의 불안]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무려 한 달이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동영상은 일단 한국어로 제작한 후, 그걸 바탕으로 중국어 버전과 영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 3개국어로 제작된 이 동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나 태신자, 그리고 새신자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스페인어 버전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You Tube에서 [인간, 존재 자체의 불안]을 검색하시면 이 동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6.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번역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연애편지처럼, 가슴에 와 닳게’라는 모토로 번역하고 있는 메시지 성경! 허게영 선교사가 번역하고, 조문철 선교사가 감수한 ‘메시지 성경’ 번역본을 통해 전세계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성경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들을 합니다. 현재 신약성경은 전체가 번역 완료되었고, 구약성경은 창세기부터 용기까지 번역 완료했습니다.



이 번역본은 <https://toomuchgrace.wixsite.com/message-korean>에서 보실 수 있으며, 무료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7. 대만 [소수민족 선교회, MFCI]와의 협력을 통한 전세계 미전도종족 선교

현재 저희는 대만의 [소수민족선교회, MFCI] 소속으로, 이 단체를 통해 선교사 비자를 받아 사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역적으로도 전세계 20 여개국의 미전도종족 선교를 위해 동역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만국, 만민, 만방을 위한 기도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슬렘 국가는 물론, 남미의 아마존 지역과 서부 아프리카 및 중화권의 미전도종족 선교에 대해 틈나는 대로 대만교회를 동원하는 일에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선교 모토가 ‘대만을 딛고 중화를 넘어 세계로!’인 만큼, 모든 나라, 민족, 백성, 방언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날이 속히 오도록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코로나 범발 이후 지금까지 ‘세브란스 의료선교회’의 지원으로 총 5 차에 걸쳐 전세계 미전도종족 사역자와 현지 원주민들 약 400 여 가정에게 Covid-19 Survival Kit(쌀과 식용유 등의 생필품)를 나누어 주는 사역도 시행했습니다.



인도, 스리랑카, 네팔 등지에서 COVID-19 Survival Kit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조문철, 허계영 선교사 기도제목>

- 1) 대만의 런아이향(仁愛鄉) 쇼우팅(壽停)부락의 갈멜산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지역복음화를 위한 작은 밀알이 되도록
- 2) [성경의 맥과 핵] 세미나가 한국과 대만에서 은혜 가운데 잘 보급되고, 대만에서 중국어본이 잘 출판되어 온 세계 중화권 사람들이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읽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 3)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제작한 [전도 동영상]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 4) 아들 조나단의 미국 박사과정 중 좋은 지도교수님과 동료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전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또한 교회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 5) 딸 조안나의 캐나다 몬트리올에서의 직장생활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좋은 동료들, 좋은 신앙의 친구들,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 6) 허계영 선교사의 어머니(89세)가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